

# 부똥과 샤루사(夏魯寺), 그리고 티벳불교\*

박대용(동광)\*\*

- I. 들어가는 말
- II. 티벳불교 속의 사카파와 부똥
- III. 간문화(間文化)의 산실 샤루사
- IV. 나오는 말

## 요약문

부똥(1290-1364)은 티벳 불교사를 거론할 때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상징적 인물이다. 부똥은 1320년에 사카파의 대표적 사원인 샤루사(夏魯寺)의 주지로 와서, 1322년에 고전 인도불교 논사들을 상세히 소개한 『부똥불교사』(*Bu-ston Chos 'byung* 부똥째중)를 저술했다. 이 책은 고전 인도불교를 연구하는 이들은 꼭 읽어봐야 할 중요한 텍스트이다.

1084년에 건립된 샤루사는 문화혁명 때 본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파괴됨에 따라, 1988년 중국 국무원에서 국가보호주요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최근 활발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원은 현재 중국의 서장자치구 시가체시의 동남쪽 20여km를 지난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다. 지정학적으로 이 곳은 티벳의 남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래로는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와 길을 맞대고 있고, 동쪽으로는 라싸와 청해성을 거쳐 중국 내륙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원은 장족과 한족의 건축 양식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내부의 불상이나 벽화도 인도, 네팔, 티벳, 중국의 미술 양식이 한데 뒤섞인 독특한 ‘샤루 스타일(Shalu Style)’을 풍기고 있다.

\*이 논문은 지난 2023.8.4-8.12에 다녀온 <김한웅 교수와 함께 하는 티벳답사기행(1탄)>에서 수집한 자료와 사진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지면을 빌어, 기행을 기획하신 고려대 사학과 김한웅 교수님과 미술사 이해에 도움주신 주수완 교수님 등 기행에 함께 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 yamadeva@hanmail.net

본문에서는 13~14세기 티벳불교를 주도한 사카파와 샤류사, 그리고 부뎬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특히 주목한 해는 “1320년”인데, 이 해에 부뎬이 샤루사에 왔을 뿐 아니라 고려의 충선왕도 대도에서 사카사로 유배를 온 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전자의 내용에만 주목하고, 후자는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겠다.

**주제어 :** 부뎬, 샤루사(夏魯寺), 사카파, 티벳불교, 티벳미술

## I. 들어가는 말

차크라바르티는 저서 『유럽을 지방화하기(Provincializing Europe)』<sup>1)</sup>에서 서구 유럽의 지방화 테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수 세기 동안 유럽 중심의 패권적 세계관-역사관을 지구촌의 특정한 역사, 즉 특수한 그레고리망 전통의 유럽-변방에서 벌어진 역사로 재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본고에서 현재 중국에 속해 있는 저장자치구(西藏自治區),<sup>2)</sup> 즉 티벳<sup>3)</sup>의 불교를 하나의 ‘중화(中華)’라는 패권적 역사관이 아니라 실크로드<sup>4)</sup>에서 펼쳐진 다민족 간의 역동적 간문화적(間文化的) 역사들(histories)의 한 갈래로 재점화하였고, 이러한 바탕에서 13~14세기 티벳불교에서 일어났던

- 1) Dipesh Chakrabarty(2000),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디페시 차크라바르티, 김택현·안준범 역(2014),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서울: 그린비).
- 2) 저장자치구는 120만㎢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2017년 중국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대략 318만명이다. 자치구의 수도는 라싸로 중국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쪽은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동쪽은 운남성, 동쪽은 진사강을 경계로 사천성, 북쪽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접하고 있다. 위도는 북위 27~37° 사이에 있어 남한과 비슷하지만, 고도가 높아 한랭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 3) 본고에서 Tibet의 한국어 음가를 일본식 발음인 ‘티베트’가 아닌 ‘티벳’으로 통일해 쓰기로 한다.
- 4)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앙아시아 교역로를 독일의 지리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 1833-1902)은 실크로드라고 처음으로 명명하였다. 그는 1877년 *China* 저서를 베를린에서 출판하는데, 여기서 “중앙아시아의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 강사이의 트란스옥시아나 지대를 경유하여 서북인도로 수출되는 주요품목이 비단이었다는 즉 고대 중국의 비단이 중앙아시아를 경유해 인도 서해안까지 운반된 사실을 감안해 이 교역로를 Seiden-Strassen(자이텐슈트라센, 비단길)라 명명”하게 되었다.

사건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가 이 시기 티벳불교에서 주목하는 해는 “1320년”이다. 이 해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이 티벳의 특정 종파(사카파)의 대표적 두 사원에서 벌어졌다. 하나는 부뵈이 샤루사의 주지로 부임해 티벳에 왔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려 충선왕이 떠나면 이국땅 사카 사원(사카사)까지 유배를 갔다는 사건이다. 이 두 일은 얼핏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원나라 지배기인 당시 티벳에서 가장 실효적인 정치적 종파가 사카파였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전자의 사건 중심으로 이 시기 티벳불교의 특색을 살펴보겠다.

## II. 티벳불교 속의 사카파와 부뵈

### 1. 전기 티벳불교\_토번 시대

티벳 최초의 통일 왕조인 토번을 건립한 제32대 왕 송젠감보(Srong btsan sgan po, 581-649 혹은 681-650)가 처음으로 불교를 수용하면서 토번 각지에 사원이 건립되고 승려 보호 정책이 시행되었다. 송젠감보의 최대 업적은 인도 산스크리트 원전을 번역하기 위해 튀미쌘보파 등을 인도에 파견하여 티벳어를 만들게 한 일이다. 라싸의 대표적 사찰인 조강 사원(大昭寺),<sup>5)</sup> 라모체 사원(小昭寺) 등도 이 시기에 창건되었다고 하나,<sup>6)</sup> 이는 티벳의 불교 전승을 송젠감보 시기로 앞당기려는 의도가 낡은 결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실제 토번 시기의 티벳불교의 첫 걸음은 티송데첸(Khrisrong-lde-btshan, 墀松德贊, 730-797) 재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토번은 파드마삼바바(Padmāsambhava, 蓮花生), 산따락시따(Śāntarakṣita, 寂護, 725-788),

---

5) 647년 창건된 조강 사원은 티벳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전설에 따르면 원래 호수였는데 이 곳은 송젠감보가 네팔에서 온 브라쿠티 데비 공주에게, 반지를 던져 떨어진 곳에 사원을 짓기로 약속하고서 반지를 던지니 갑자기 호수에서 커다란 빛이 나타나고 9층 백담이 솟아나면서 산양들이 흠을 짊어져 사원을 지었다고 전한다. 紫圖編輯部, 박철현 역(2011), 93.

6) 김성수(2006), 197.

까말라실라(Kamalaśīla, 蓮花戒, 740-795) 등 인도의 고승들을 대거 티벳에 초청하였으며, 삼예사(桑耶寺, bsam yas mi 'gyur lhun grub gtsug lag khang 삼예밍구르힌둑츝락강)를 창건하였다. 이 사원은 불교 우주관을 형상화하고 중앙에서 주변부 건물의 순서대로 티벳, 중국, 인도식 건축 양식을 모두 아우르고 있어 토번 시대 문화 교류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 사원은 티쑹데첸 왕의 재위 말기 중관유가행파 까말라실라 논사와 중국의 마하연(摩訶衍) 선사가 벌인 ‘삼예 논쟁(bsam yas rtod pa 삼예죄빠)’, 일명 ‘깨달음과 수행의 돈점(頓漸) 논쟁’이 벌어졌던 곳으로 유명하다.<sup>7)</sup>

흔히 고대 종파, 줄여서 고파(古派)라는 뜻을 지닌 닝마파(rNying ma pa)<sup>8)</sup>는 토번 왕국의 보호 아래 뿌리내리게 되었다. 파드마삼바바가 세운 전례에 따라 처음에는 결혼한 승려들에게서 교의가 전수되었으나, 나중에는 엄격한 독신주의 전통으로 발전해 나갔다.<sup>9)</sup> 978년 이전까지 티벳 불교도들은 모두 닝마였지만, 닝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티벳인들은 후대의 여러 고파들이 생겨난 뒤에야 비로소 닝마파라고 불렀고, 하나의 뚜렷한 종파로 각인되었다.<sup>10)</sup>

토번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 42대 랑 다르마(gLang dar ma, 799-846, 재위기간 838-842) 왕은 짧은 기간이지만 강력한 폐불 정책을 펼쳐 수많은 사원을 파괴시키고, 나아가 승려들을 살해하고 환속시키는 등 불교 탄압의 휘발 만행을 자행했다. 당시 토번 사원들의 승려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등 한동안 암흑기를 보냈다. 티벳 불교사를 논할 때, 이 때까지를 ‘전기 티벳불교’, 혹은 ‘전홍기(前弘期; 전전기)’라 하고, 그 후 불법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후기 티벳불교’, 혹은 ‘후홍기(後弘期; 후전기)’라 부른다.

7) 이 ‘삼예 논쟁’에 대한 최신 연구로 차상엽(2023), 「티벳 논쟁으로서 삼예 논쟁의 비판적 검토」(『불교학연구』 75호)를 참조하라.

8) pa는 ‘사람’ 또는 ‘구성원’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 티벳의 4대 종파인 닝마, 까규, 사카, 겐룩은 모두 원음 ‘빠’가 아닌 ‘파’를 붙여 통일해 쓸 것이다.

9) 토머스 레이드, 황정연(2008), 103.

10) 토머스 레이드, 황정연(2008), 103-104.

## 2. 후기 티벳불교\_아띠샤의 출현 이후

894년경 세 명의 학생인 요계워중내, 쟁랍셀, 마르사까무니는 다수의 울장을 가지고 티벳 아래 암도 지방으로 도망갔다. 몇 년 후 라첸 공빠랍셀이라는 사람이 이 세 분을 찾아가 수계를 청했으나, 비구가 한 명 부족하여 계단(戒壇)이 완성되지 못했다. 이에 중국인 비구 한 명을 더해 총 네 분 비구들이 라첸 공빠랍셀을 출가시켰고 사미와 비구계를 차례로 주었다. 계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티벳 내륙에서 열 명이 암도로 찾아와 계를 받고 다시 티벳으로 돌아갔다. 이에 후자는 “후기 티벳불교는 아래 지방에서 시작하여 중심 지방으로 불교를 회복시켰다”고 말하였다.<sup>11)</sup>

시간이 흘러, 인도의 비끄라마실라 대학의 학장이자 귀류논증[중관]파(thal'gyur ba, \*prāsaṅgika) 논사인 아띠샤(Atiśa, 982-1054)<sup>12)</sup>가 1042년 구계왕 예세외의 조카 장츄외(Byang chub 'od)의 초청으로 티벳 서남부 아리 지방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티벳불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중관학을 근간으로 하는 깨달음의 실천과 수습(修習)을 강조하는 『보리도등』(菩提道燈, *Bodhipathapradīpa*, D3497/4459, P5343/5378)과 『보리도등세소』(菩提道燈細細疏, *Bodhipathapradīpa-pañjikā*, D3948, P5344)를 저술했다.<sup>13)</sup> 그가 후기 중관학과(=유가행중관파, rNal 'byor spyod pa'i dbu ma pa)에 속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쩌न्द्र라끼르피(월칭)를 계승한 귀류논증파라고 단언하기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sup>14)</sup>. 그럼에도 티벳에서 아띠샤의 활약을 기점으로 이전 토번 시대의 전기 티벳불교와 달리 후기 티벳불교의 서광을 열게 된다.

티벳 교단은 닝마파를 제외한 카담파, 사카파, 까규파, 겐룩파 모두 11세기 이후 약 3세기 동안 출현했는데, 이는 아띠샤 이래 티벳불교 부흥이 쯔뽀빠('brom

11) <법보신문> 제1286호(2015.3.18.), 「2. 티베트 불교의 쇠퇴와 융성」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10\\_2023.11.20](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10_2023.11.20). 검색)

12) 아띠샤는 카담파(Kadampa)의 창시자로, 이 교단에서 이후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의 황모교 교단인 겐룩파가 나왔다. 디팜까라수리즈나나(Dīpaṃkaraśrījñāna)라고도 불리는 아띠샤는 밀교로 유명한 남인도 사호르의 왕자로 서술되고 있다. R. A. 슈타인, 안성두 역(2018), 70.

13) 사이트 아키라 외, 남수영 역(2015), 135. 미야자키 이즈미(宮崎泉), 제6장 아띠샤의 중관사상

14) 사이트 아키라 외, 남수영 역(2015), 163-190. 요시미즈 지즈코, 제7장 티벳의 중관사상

ston pa, 仲敦巴, 1005-1064) 등의 제자들에 의해 펼쳐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 시기에 출현한 교단들은 이전 토번 시기와는 다르게 지방 분권의 새로운 정치 지형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지방 정권과 교단이 매우 긴밀한 협력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혹 더 나아가 교단이 직접 지방정권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특히 대표적인 ‘씨족 교단’이라 불리는 사카파의 출현으로 티벳 불교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sup>15)</sup>

### 3. 사카파의 등장

사카파(sa skya pa)는 11세기 경에 등장했으며, 창시자 핀축 겔보(dKon mchog rgyal po, 1034-1102)는 귀족 가문인 콘(‘khon, 昆)<sup>16)</sup> 가문(씨족)의 후예였다.<sup>17)</sup> 이 콘 가문은 원래 상승(象雄)<sup>18)</sup> 왕조의 후손으로 대대로 닝마파를 신봉했다.<sup>19)</sup> 핀축 겔보는 유년기에 승려들이 가면을 쓰고 밀종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이를 배우고자 당시 역경가로 명성이 높았던 독미 샤카 예쉐(‘brog mi śākya ye shes, 994-1078)에게 사사해 도과법(道果法; 람데)을 배웠다.<sup>20)</sup> 이후 그는 1073년 사카 지역에 사카 사원을 세워 ‘사카파’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티벳어로 사카는 회백토(灰白土)라는 뜻으로 이 사원이 위치한 주변 산의 색깔에 유래한 것이다.

핀축 겔보는 티벳불교 교파 중 세속 귀족의 신분으로 교주가 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법위 계승이 자신의 가족 내에서만 행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사카파는 승려의 혼인을 허용해야 했고, 자식을 낳은 후에는 부인과의 성적 접촉을 엄격히 금하도록 했다. 이로써 정치와 종교 권력에 대한 콘 가문의 독점이 가능

15) 김성수(2006), 198.

16) 『元史』에서는 관(款)으로 쓰여져 있다.

17) 紫圖編輯部, 박철현 역(2011), 133.

18) 이 상승(象雄) 왕국은 고대 티벳의 북서부 일원에서 존재했으며, 티벳에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643년까지 티벳의 고대 종교 빈교(Bön)의 주 무대였다.

19) 콘 가문은 토번 왕조 이전의 구 귀족인데, 티송데첸 시절의 일족 가운데 내상(內相, nang blon)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고, 또 일설에는 산파라시파가 출가시킨 최초의 티벳 승려 7인 중 한 명인 핀 루이 왕포승(‘khon klu’i dbang po srung; 핀 루이겔첸)도 이 집안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핀 루이왕포승이 7인에 포함 여부는 티벳 사료마다 다르다.

20) 紫圖編輯部, 박철현 역(2011), 133.

하게 되었다.<sup>21)</sup> 사카파 5조의 가족 범위 계승은 다음의 <표 1>과 같다.<sup>22)</sup>

<표 1> 사카파의 5조 \*범위 계승

	이름	생몰	비고
1조	쿵가 닝포 Kun dga' snying po	1092~1158	원측 겐보의 아들. 도과법(道果法)을 완성.
2조	소남 체모 bSod nams rtse mo	1142~1182	쿵가 닝포의 둘째 아들
3조	닥파 겐첸 Grags pa rgyal mtshan	1147~1216	쿵가 닝포의 셋째 아들
4조	사카 판디따 <sup>23)</sup> Sa skya paṅḍita	1182~1251	1249년 몽고의 구육 칸에게서 사카파의 티벳의 정치적 지배권 보장받음.
5조	초겔 팍빠 <sup>24)</sup> Tsho gyal 'phags pa	1235~1280	1253년 쿠빌라이 칸과의 조우, 파스파 문자 창시

위 <표 1>에서 보듯, 13세기 중반 티벳의 지방 세력은 원나라 조정 휘하에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사카파 4조 사카 판디따는 1249년 몽고의 대칸 구육(고단)에게서 티벳의 정치적 지배권을 보장받았다. 1253년, 혹은 1260년 몽고의 새로운 대칸으로 등극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은 19세의 어린 초겔 팍빠에게 국사(國師)로 봉하는 옥인(玉印)을 하사하였고, 그가 수장으로 있는 사카파가 티벳의 전체 13주를 관장할 것을 명하는 칙령을 내렸다.<sup>25)</sup> 1280년 초겔 팍빠가 사카에서 입멸했을 때 쿠빌라이는 “皇天之下一人之上開教宣文輔治大聖至德普覺眞智佑國如意大寶法王西天佛子大元帝師”라는 칭호를 하사했다.<sup>26)</sup> 쿠빌라이가 팍빠를 ‘국사’와 ‘제사’로 봉한 이래, 원나라 역대 황제들은 반드시 ‘제사’를 두었다.

21) 紫圖編輯部, 박철현 역(2011), 133.

22) 위 <표 1>은 다음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해 만들었다. 이시하마 유미코 편저, 김한웅 역(2007), 54-59; 紫圖編輯部, 박철현 역(2011), 135; R. A. 슈타인, 안성두 역(2018), 76-77; 왕삼, 김명숙 역(2023), 113-147.

23) 사카 판디따는 줄여서 사판(sa pan)이라 하고, 사판 쿵가첸첸(sa pan kun dga' rgyal mtshan)이라고도 부른다. 그는 5명(明)과 7인명학(因明學)에 통달해서 ‘판디따(paṅḍita)’라는 칭호를 얻었다.

24) 팍빠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성자를 의미한다.

25) R. A. 슈타인, 안성두 역(2018), 77.

26) 왕삼, 김명숙 역(2023), 122.

황제들은 제사에게 불계(佛戒)를 아홉 번 받은 후 즉위하였으니, 제사는 당연히 조정의 중요한 관직이 되었다.<sup>27)</sup> 현재 샤루사에는 이 당시 제사와 관련된 상당수의 문건이 보관되어 있다.<sup>28)</sup> 따라서 이 사카파 가문은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 정치적으로 티벳 전역을 통치하는 세력으로 군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서기 1320년 부뎨

조낭파(jo nang pa)의 개조 뉘보빠 쉘랍겔첸(Dol po pa shes rab rgyal mtshan, 1292-1361. 이하 뉘보빠)은 시륜(時輪, kālacakra)-만뜨라에 기반한 타공설(他空說, gzhan stong)을 제창하였고, 그의 제자 축레남겔(Phyogs las mnam rgyal, 1306-1386)이 이 타공설 교의를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타 종파의 논사들과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궁극적 실재(=승의유)가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공한 것”이라는 타공설을 외침으로써, 그들이 티벳 불교사에 풍성한 철학적·종교적 이슈를 제공한 점은 연구사적 가치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뉘보빠 이후 롽상닥빠(Blo bzang grags pa, 1357-1419)와 소납생게(bSod nams seng ge, 1429-1489) 등의 14-15세기 티벳 논사들은 자공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뉘보빠의 타공설을 비판했다. 반면 조낭파의 사상 마띠 반첸 잠압 로되겔첸(Sa bzang mati paṅ chen jam dbyangs blo gros rgyal mtshan, 1294-1376)과 축레남겔, 『인도불교사』(rgya gar chos 'byuñ)를 쓴 파라나타(Tāranātha, 1575-1634) 등은 타공설을 인정하는 입장을 펼쳤다.<sup>29)</sup> 이후 1642년 달라이 라마 정권이 수립된 뒤 이 조낭파는 겔룩파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되어 금교령이 내려졌다.<sup>30)</sup>

조낭파의 타공설을 최초로 비판한 인물은 부뎨이었다. 그는 1359년 자신의 저서 『선서장善逝藏의 여식麗飾』(bde sñing mdses rgyan)에서 월칭의 『입중론入中論』에 입각하여 조낭파의 견해를 철저히 비판하면서, 여래장설은 깨치지 못한

27) 왕삼, 김명숙 역(2023), 123-124.

28) 왕삼, 김명숙 역(2023), 125.

29) 차상엽(2014), 210-211.

30) 마츠모토 시로, 이태승 외 공역(2008), 52-53.



미료의(未了義, *neyārtha*)여서 승의의 실재[勝義有]가 아니라 공(空)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sup>31)</sup> 이러한 자공·타공 논쟁에 참여하게 된 부핀은 샤루학파(일명 부핀학파)의 창시자인데, 그의 저작은 티벳불교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부핀의 저작들을 한 데 모은 전집을 펴낸 달라이 라마 13세에 의하면, 그 글들은 테게판 26함(函) 200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이라고 말했다.

1320년 이후 샤루사의 주지로 재직하는 동안 네 개의 주요 판뜨라를 널리 전파하였고,<sup>32)</sup> 티벳대장경(서장대장경)을 편찬하고 목록집을 작성했다. 다만 그는 닝마파가 전승한 출처 불명의 판뜨라 문헌은 경전으로 신뢰하지 않아 대장경에 수록하지 않았다. 그가 일부러 대장경의 경부(經部) 깐규르(*bka' gyur*)에 누락시킨 ‘고역 판뜨라’는 후에 닝마파의 라뜨나 링 빠(*Ratna gling pa*, 1403-1476)에 채록되어 오늘날 『고파(古派) 판뜨라집』(*rNying ma rgyud 'bum*)의 원형이 되었다.<sup>33)</sup>

무엇보다도 학술적 입장에서 바라본 부핀의 최대 업적은 1322년에 쓴 『부핀불교사』(*Bu-ston Chos 'byung* 부핀췌중)라고 할 수 있다. 이 텍스트에서 그는 인도 및 네팔 불교사를 비롯해 티벳의 불교 전승사를 소상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인도에서 소실된 문헌 및 인물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인도 불교 연구자들은 『부핀불교사』에 담긴 인물(논사) 정보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부핀은 카담파, 까규파, 사카파, 닝마파의 특성을 통합하여 판뜨라 경전을 편찬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그의 명성을 듣고 티벳 도처에서 샤루사에 모인 승려는 3,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제 도르곤 테므르(1320-1370)가 부핀의 상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그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름난 제자가 많았는데, 그 중 두 세 명은 쯙카빠(1357-1419)의 스승이 되었다. 부핀이 입적한 후 샤루사는 그를 초대로 하는 활불전세(活佛轉世) 제도를 확립하려 했다. 이처럼 그가 티벳불교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지만, 그럼에도 한 번도 정치에는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가장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학승(學僧)의 면모를 후대에 남겼다.<sup>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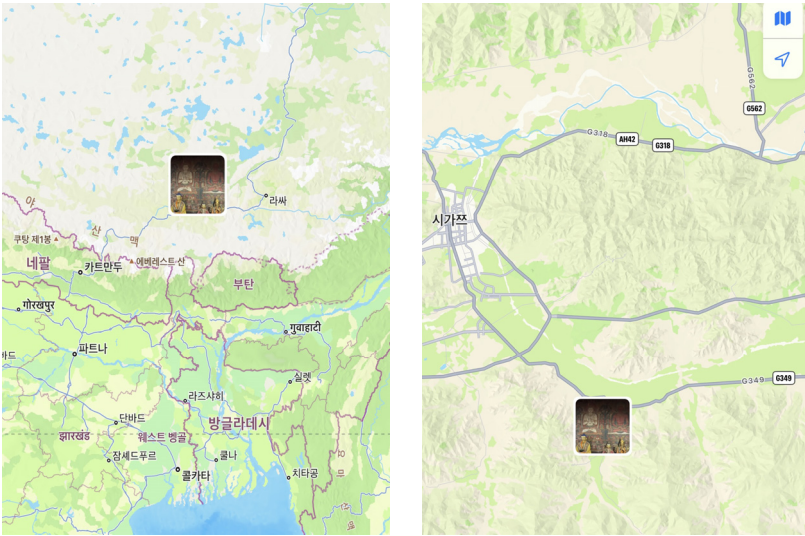
31) 마츠모토 시로, 이태승 외 공역(2008), 53.

32) 부핀은 네 종류의 판뜨라 가운데 시룬판뜨라(*kālacakrantra*)를 으뜸으로 생각했고, 이에 대한 주석을 썼다.

33) 마츠모토 시로, 이태승 외 공역(2008), 54.

### Ⅲ. 간문화(間文化)의 산실 샤루사

샤루사(夏魯寺, Tib. Shalu dgonpa. 샤루공빠)는 현 중국의 저장자치구 시가체(日喀則, 시가쯔) 시 중심으로부터 G349번 지방도로를 따라 약 20여Km 떨어진 상주지구(桑珠孜區) 남동쪽 가초츨 마을(甲措雄鄉)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아래 지형도에서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좌우의 산들로 둘러싸여 움푹 패인 긴 분지 지형이다.



<그림 1> 구글 지도에서 본 샤루사의 위치와 지형

전기(傳記, mam thar. 남타르)에 따르면, 이곳은 토번의 10대 상업 시장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 곳의 샤루사는 1087년(북송 원유 2년)에 처음 조성된 샤루 종파의 종찰(宗刹)이다.

랑 다르마의 법난을 피해 티벳에서 청해성(青海省)으로 망명했던 고승을 좇아

34) 왕삼, 김명숙 역(2023), 241.

간 티벳 승려 10명 가운데 한 명인 로텐 도르제 왕슈(Loten dorje wangxiu)는 학업을 마치고 티벳으로 돌아와 시가체 남동쪽에 작은 사원을 지었다. 이곳에서 그는 짜준 쉐랍 중나이(Jetsun sherab jungnay)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 제자는 이후 인도로 유학을 떠나 불교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귀국했다. 이때 짜준은 스승에게 미래에 티벳 불교학의 큰 터전이 될 가람을 지을 터를 골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스승은 사원 부지를 택일하기 위해 화살을 허공에 쏘았다. 화살은 이제 막 싹을 틔운 어린 작물이 있는 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 사원의 이름이 샤루사가 된 것이다.

티벳 불교사에 따르면, 1310년대 짜준 가족의 수장 자바 겔첸(Zaba Gyaltzan)은 원나라 황제에게 불사금을 시주받아 샤루사 확장 불사를 마쳤다. 현재 샤루사의 건축 규모나 양식 및 대부분의 그림과 조각은 이 때에 조성된 것이다. 1320년 사원 불사가 완료된 후 자바 겔첸은 당시 저명한 학승인 부뎨 립첸둠(Bu-ston Rinchen grub, 1290-1364. 이하 부뎨)을 사찰 주지로 모셨다.<sup>35)</sup> 부뎨이 이 사원에 왔을 때 사원의 승려 수는 3,000명이 넘을 만큼 최전성기를 구가했다.

1329년 시가체 대지진으로 샤루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찰 주지인 지자이(Zi Zai)는 북경에 있었는데, 원나라 황제는 피해 소식을 전해 듣고 지자이에게 즉시 티벳으로 되돌아가 사원을 재건하라고 명령하면서 막대한 복구비용을 시주하였다. 이때 지자이는 중원에서 다수의 한족 장인들을 데리고 왔다. 동행해 온 한족 장인들은 티벳 현지에서 유약 벽돌과 타일을 만들어 썼다. 133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원 복원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점은 한족 장인과 티벳 장인의 건축 기술이 혼합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사원 복원 작업(재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샤루사는 문화혁명 당시 심하게 훼손되어 대경당만 남았다. 1981년과 1989년에 중국 당국은 샤루사의 원형을 복원하고 수리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옆 <사진 1>에서 보듯, 이 복원 작업은 현재도 진행중이다.<sup>36)</sup> 2023년 현재 사원에는 60명 이상의 승려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35) 부뎨이 까규파인가 사카파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36)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샤루사 복원을 위한 세 번째 재건축 공사는 2009년 5월 13일에 시작되었으며, 건물 보강, 하수 처리 시설 유지 관리, 화재 및 홍수 통제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되며 이 복원 프로젝트에는 1,600만 위안 이상이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1〉 복원 중인 샤루사 부속 건물  
사진: 저자 촬영(2023.8.9.)

샤루사는 티벳과 한족을 결합한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건물은 한식 유약 벽돌과 기와 지붕, 처마 장식과 나무 기둥을 받치는 티벳식 건물을 채택하여 티벳과 중국의 건축 양식이 잘 융합되어 있다.

샤루사의 주 건물은 대웅보전으로 티벳과 한족 스타일이 결합된 3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49개의 방이 있으며 면적은 1,500㎡이다. 1층은 안뜰에 있는 티벳식 경당으로 석가모니 불상을 비롯한 각종 팔부신장 및 부똥 존상도 모시고 있다.



〈사진 2〉 샤루사 경내와 주 건물, 사진: 저자 촬영(2023.8.9.)

주 건물 오른쪽에 대웅보전으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를 지나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내부에는 각종 불보살을 예배 감실이 ㄷ자 형태로 감싸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만다라 홀이고 대장경의 칸규르와 텐규르를 각기 보관하고 있다.



〈사진 3〉 대웅보전 내부, 사진: 저자 촬영(2023.8.9.)



〈사진 4〉 대웅보전 내부의 좌우 감실에 보관 중인 대장경 경판과 목록  
사진: 저자 촬영(2023.8.9.)

샤루사에는 불상, 비천의 압사라(Apsara)<sup>37)</sup> 등을 포함하여 두께가 얇은 조각

37) 압사라는 건달바의 부인으로 인드라가 다스리는 도리천에 거주하며, 남편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존재이므로 신들의 유희를 담당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불교 벽화 속의 압사라는 무희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악기를 연주하며 날라다니는 존재로 표현되므로 주로 ‘비천(飛天)’이라 불린다. 더 자세한 연구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2016), 179-201. 강희정, 「압사라의 길, 비천의 문화: 실크로드를 통해 본 8세기의 세계화」를 보라.

석화가 있다. 각 감실의 주불 주변에는 신도들이 기증한 지폐로 가려진 작은 불보살상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루사 벽화는 원나라 티벳불교 벽화의 전형인데, 현교(현종)와 밀교(밀종)를 주제로 하고 있다. 현교 벽화는 주로 붓다의 전기 이야기로 1층 금당 복도 주변에 있다. 그 중 까르마 까규 흑모자의 랑준 도르지(1284-1339)가 쓴 붓다의 전생담(백유경)을 바탕으로 한 벽화 100점(기존 96개)이 있다. 밀교(판뜨라) 벽화는 주로 만다라와 만다라에 있는 불보살, 호법신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중 사원 내벽에는 5불(대일여래불, 아촉불, 아미타불, 보생불, 불공성취불)이 모셔져 있다.<sup>38)</sup>



〈사진 5〉 사루사 대웅보전 후불탱화, 출처: 저자 촬영(2023.8.9.)

38) 다음은 티벳불교의 5불을 정리한 도표이다.

〈표 2〉 티벳불교(밀교)의 5불

	5불	색	방위	인상	좌	종자	오지(五智)
1	대일여래불	백색	중앙	지권인	사자	om	법계체성지
2	아촉불	청색	동	촉지인	코끼리	hūm	대원경지
3	보생불	황색	남	여원인	말	trāṃ	평등성지
4	아미타불	적색	서	선정인	공작	hrīḥ	묘관찰지
5	불공성취불	녹색	북	시무외인	가루나	khaṃ	성소작지



〈그림 2〉 샤루사 대웅응전 후불탱화 확대도

위 <그림 2>는 샤루사 회화를 대표하는 대웅보전 후불탱화에 있는 두 분 부처의 모습을 확대한 것이다. 이 탱화를 보면서 “샤루 스타일(Shalu Style)”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자.<sup>39)</sup>

첫째, 얼굴 상호의 길이가 조금 더 짧아졌다. 머리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다. 눈의 위치가 많이 내려가 있으며, 아이들의 얼굴 비율처럼 눈 위의 눈썹과 이마가 더 크다. 가느다란 팔다리와 작은 손발을 가지고 있다. 단층 오염관을 착용하고 더 큰 귀걸이로 바뀌되었다.

둘째, 연꽃 좌대는 직선이다. 대좌 중앙에는 둥근 꽃이나 풀을 말린 장식천이 있다. 받침대 중앙에는 이국적인 동물, 상상의 새, 금강역사 등의 이미지도 있다.

셋째, 얼굴, 벨트, 장식품, 식물의 잎 줄기에는 3차원적 광택이나 밝은 선을 표현하는 ‘강조점’이 있다. 식물의 장식과 줄기가 선묘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인다.

넷째, 중원 한족 미술 전통의 침투로 의류 벨트 디자인은 크고 펄럭이는 경향이 있다.

39)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리토리 모토히로·나카무라 료오 외, 김무생 역(1989), 『밀교의 역사와 문화』(서울: 민족사)의 제5장 티베트의 밀교(키타무라 타이도, 87-114쪽)와 제6장 티베트밀교의 미술(요리토미 모토히로, 115-137쪽)을 참조하라.

이처럼 샤루 스타일은 샤루사와 같은 사원에서 만들어진 회화 스타일을 말하는데, 이 스타일은 14세기 경 네팔 미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샤루사 벽화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샤루 양식을 대표하는 벽화는 주로 1333년 이후에 복원된 것들인데, 주변 홀은 폐쇄 통로 복도로 되어 있고, 복도 외벽에는 붓다의 생애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1층 홀 내부에는 원숭이 왕국을 주제로 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샤루사에서 예술 수준이 가장 높은 벽화 작품은 주로 본당 복도, 1층 회랑, 2층 정면 복도에 있다.

샤루사 벽화가 전반적으로 높은 예술 평가를 받는 이유는 첫째, 11~13세기에 등장한 티벳 회화 전통이 샤루 예술의 좋은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이고, 둘째, 샤루 스타일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네팔 미술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샤루사의 복원 과정에 한족 장인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말해, 샤루사의 건축 예술은 한족과 티벳의 건축 양식이 완벽하게 결합된 산물이며, 이는 건축뿐 아니라 탱화와 벽화에도 잘 반영되었다. 즉 중원의 평원 문화가 티벳의 고원 회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진 6〉 대웅보전 주위 네팔 및 중국 양식의 감실, 사진: 저자 촬영(2023.8.9.)

샤루사 벽화는 원나라 미술과 네팔, 인도 등의 불교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중국 내륙 예술의 특징을 보이는 것은 사천왕과 같은 인물의 형태와 누각 문



양, 청룡 문양과 주작 문양 등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 네팔 및 인도 불교 미술의 형태는 주로 전형적 불보살상의 구도, 조형, 의식의 일부에서 나타나고, 본당 복도 벽화에서 춤추는 무희 모습은 남아시아 인종의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사루사 벽화는 원말 명초의 티벳 벽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으로 1425년 명대에 조성된 간체(江孜)의 백거사(白居寺) 벽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사진 7〉 백거사의 두 벽화(좌: 대웅전 안, 우: 쿨똌 탑 내)  
사진: 저자 촬영(2023.8.9.)

위 <사진 7>에서 보듯, 백거사 벽화는 인도 양식과 티벳 양식, 그리고 네팔 양식이 뒤섞여 있다. 따라서 사루사 벽화는 원과 명 왕조의 티벳 벽화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사루사에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4개의 보물이 있다. 첫 번째 보물은 108개의 백단으로 제작된 경판(經板)이고, 두 번째 보물은 대웅보전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직경 80cm짜리 대형 청동 청수그릇이고, 세 번째 보물은 이 절의 터파기 공사 중에 나온 육자진언석이고, 마지막 보물은 대웅보전 앞에 전시된 석조 세면대이다. 이 석조 세면대는 이 사원을 창건한 짜준이 수행을 위해 사용한 세면대라고 전하는데, 비오는 날에도 이 세면대 안의 물은 흘러 넘치지 않는다고 한다.

## IV. 나오는 말

이상에서 필자는 ‘지금의 시간 지평(temporal horizon of the now)’ 너머에서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티벳불교의 한 꼭지점(변곡점)을 재구성해보았다. 여기서 필자는 1320년대 티벳의 한 단면(부편과 샤루사)을 제시함으로써 인도, 부탄, 네팔, 티벳, 중국, 나아가 한국으로 이어지는 문명 교류의 현장을 보았다.

지정학적으로 샤루사는 티벳 남부에 있으면서 아래로는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와 길을 맞대고, 동쪽으로는 라싸와 청해성을 거쳐 중원, 나아가 한반도까지 뻗어 있다. 샤루사에서 티벳, 인도, 중국, 그리고 네팔의 건축 양식과 회화 양식이 혼재된 독특한 ‘샤루 스타일(Shalu Style)’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동서 실크로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간문화(間文化) 교류 현상이었기에 가능한 필연의 산물이었다. 샤루사 벽화의 등장은 티벳 회화사에서 중요한 사건인데, 이는 이전 시대(토번)의 티벳불교 예술의 종말을 알리는 서막이다. 14세기 샤루사 벽화 스타일은 회화 분야에서 새로운 예술적 매력으로 티벳을 너머 동아시아 각 방면으로 전파되었다. 따라서 샤루사와 아주 가까운 간체의 백거사 미술도, 저 먼 라닥 서부의 미술도 이 샤루사 미술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필자는 티벳 불교사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인물이 부편이라고 본문에서 밝혔다. 부편은 1320년 티벳의 남부 교역로의 샤루사 주지로 와서, 1322년에 『부편불교사』를 저술하는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대단한 학승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아마도 이 중에는 불교를 국가통치이념으로 삼았던 고려에서 온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유학승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320년 12월, 샤루사와는 한참 떨어진 사카사에 또 다른 고려인 충선왕도 신하 몇 명을 데리고 유배를 왔다.

왜 이런 기막힌 우연이 일어난 것일까? 이 두 사건이 영겨있는 실타래를 풀려면 1320년 이들이 도착한 두 사원의 종파, 즉 사카파를 다각적으로 들여다 보는 작업은 필수이다. 이를 통해 필자가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당시 세계의 중심축인 원 제국에서 변방 티벳의 사카파가 정치적·사회적·종교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애초에 “1320년”이라는 특정 해에 주목하고서 이 논고를 펼쳤고, 다만 후자의 인물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겨두겠다.

## 참고문헌(References)

### • 단행본

-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2016). 『종교와 민족, 실크로드』. 서울: 민족사.
- 나가사와 가즈도시(1990).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이재성 역. 서울: 민족사.
- 디페시 차크라바르티(2014).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김택현·안준범 역. 서울: 그린비.
- 런민(人民)대학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도요(東洋)대학 동양학연구소·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공편(2021). 『동아시아 불교와 위의경』. 서울: 여래.
- R. A. 슈타인(2018). 『티베트의 문화』, 안성두 역. 서울: 씨아이알.
- 마츠모토 시로(2008). 『티베트 불교철학』, 이태승 외 공역. 서울: 불교시대사.
- 왕삼(2023). 『티베트 불교사』, 김명숙 역. 파주: 태학사.
- 요리토미 모토히로·나카무라 료오 외(1989). 『밀교의 역사와 문화』, 김무생 역. 서울: 민족사.
- 이시하마 유미코 편저(2007). 『티베트, 달라이라마의 나라』, 김한웅 역. 서울: 이산.
- 사이토 아키라 外 저(2015). 『공과 증관』(대승불교시리즈6), 남수영 역. 서울: 씨아이알.
- 시모다 마사히로 外 저(2015). 『여래장과 불성』(대승불교 시리즈8), 김성철 역. 서울: 씨아이알.
- 紫圖編輯部(2011). 『1만년의 이야기 티베트』, 박철현 역. 서울: 새물결.
- 토머스 레이드(2008).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황정연 역. 서울:웅진씽크빅.
- 西藏博物館 編(2007). 『西藏博物館』.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D. Chakrabarty(2000).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 Stein & N. Zangpo(2013). *Butön's History of Buddhism in India and Its Spread to Tibet*. Boston & London: Snow Lion.

• 논문

- 김성수(2006). 「티벳 전통사회에서의 사원과 “티벳불교 문화권”의 형성 - 겔룩 교단 사원의 내륙아시아 傳敎를 중심으로 -」, 『몽골학』, 제21호. 한국몽골학회, pp. 195-223.
- 박치완(2020). 「의심의 ‘한국’ 철학, 한국에서도 철학을 하는가?」, 『동서철학연구』, 제98호. 서울: 한국동서철학회, pp. 575-604.
- 조석효(2014). 「연기와 공성 그리고 여래장에 대한 티벳 사상가들의 이해」, 『불교학연구』, 제38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pp. 185-221.
- 조석효(2019). 「탄뜨라 불교 순례에 대한 한 해석\_13세기 티벳 승려 차 로짜와 최제팔(Chag Lo tsā ba Chos rje dpal, 1197~1264)의 인도 순례를 중심으로」, 『인도철학』, 제56호, 서울: 인도철학회. pp. 145-186.
- 조석효(2021). 「14세기 티벳불교의 논쟁적 이슈들: 나은 꺀가뵐(Nya dbon Kun dga’ dpal)(1285~1379)의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66호. 대구: 불교학연구회, pp. 267-294.
- 차상엽(2014). 「연기와 공성 그리고 여래장에 대한 티벳 사상가들의 이해」, 『불교학연구』, 제38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pp. 183-221.
- 차상엽(2023). 「티벳 논쟁으로서 째애 논쟁의 비판적 검토」, 『불교학연구』, 제75호. 서울: 불교학연구회, pp. 57-98.

---

ABSTRACT

## Bu-ston, Shalu Temple (夏魯寺), and Tibetan Buddhism

Park, Daeyong (Ven. Dongkwang)

Research Professor,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

Bu-ston (1290-1364) is a symbolic figure that must be mentioned at least once when discussing the history of Tibetan Buddhism. In 1320, Bu-ston came as the head monk of Shalu Temple (夏魯寺), a representative temple of *Sa kya pa*, and in 1322, he published the *Bu-ston Chos 'byung*, which introduced in detail the writings of Classical Indian Buddhism. This text is an extremely important text that must be referenced by those studying Classical Indian Buddhism.

Meanwhile, as most of the buildings of Shalu Temple, built in 1084, except the main temple were destroyed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it was designated as a nationally protected major cultural property by the State Council of China in 1988, and active restoration work is being carried out recently.

This temple is located in a small village about 20km southeast of Shigatse City, Xijiang Autonomous Region, China. Geographically, it i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ibet, bordering India, Nepal, Bhutan, and Myanmar to the east, and connects to the inland of China through Lhasa and Qinghai Province to the east.

Therefore, this temple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the Zhuang and Han Chinese architectural styles, and the Buddhist statues and murals inside also exude a unique 'Shalu Style' that is a mixture of the art styles of India, Nepal, Tibet, and China.

Accordingly, in this text, we will look at *Sa kya pa*, Shalu Temple, and Bu-ston, who led Tibetan Buddhism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from various angles.

The year that I particularly paid attention to was 1320, which was not only the year that Bu-ston came to Shalu Temple, but also the year that King Chungseon of Goryeo was exiled from Daedo to Sa skya Temple. However, in this paper, due to space constraints, we will focus only on the former and leave the latter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Bu-ston, Shalu Temple (夏魯寺), *Sa skya pa*, Tibetan Buddhism, Tibetan Art.

투고 일자: 2023년 12월 20일

심사 완료: 2023년 12월 25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26일